

〈제 581호〉

-주간- **광주 경영계**

### 광주신세계

#### ◆ 취약계층가정에 후원금 전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지난 13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놀이키트'를 지원하기 위해 서구청장실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서대석 서구청장과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고후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충청호남영남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진행하는 '놀이키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돌봄시설이 폐쇄돼 집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이 효과적인 여가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광주신세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층 이벤트홀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놀이키트 지원 후원금 1천만원을 마련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에게 '놀이키트'를 지원하게 된다.

### 광주은행

#### ◆ 지역아동센터 간식 지원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 북구 민들레지역 아동센터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서경훈 민들레지역아동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착한 간식'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광주은행은 '어린이 착한 간식' 행사를

펼치며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1천만원의 간식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지원금은 민들레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추천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총 5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 사랑방미디어

#### ◆ 광주상생기금 1억1000만 원 기부



사랑방미디어(회장 조덕선)는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광주상생기금 1억1000만 원을 이용섭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용섭 시장, 조덕선 사랑방미디어 회장,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정문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광주본부장,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터티 회장과 장인균 무등일보 사장, 조정선 사랑방미디어 대표이사, 구길용 뉴시스광주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랑방미디어가 전달한 상생기금은 광주지역 위기가정과 결식아동, 청년취약계층을 비롯해 부동산업·요식업·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해양에너지

#### ◆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진대비 특별안전점검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14일 전남 해남군 지진발생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대용량 수요처의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특별점검은 지난 9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점에서 규모2.2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해남지역의 빈번한 지진으로 도시가스 배관 및 정압기, 대용량 수요처 등의 시설물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공급

시설 영향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발생될 지진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대용량 수요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의 공급시설인 정압기와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지진규모 6.0까지 견딜 수 있게 내구성을 갖춰 설계하고 시공되어, 지진 발생과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공급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제1484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월15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홍석기 서울디지털대 겸임교수를 초청 <위기의 시대 경영자를 위한 인문경영과 미래전략>이란 주제로 제148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가 끝나면 생각의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

100년 1,000년가는 회사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고객에 대한 감동과 회사와 세계를 위한 혁신,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라. 직장은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이다.

200여년 전 독일 초등학교에 아주 적과 적이 있었다. 철강왕 아들 비트겐슈타인과 그 철강회사 노동자의 아들 히틀러다. 매일 아침마다 비트겐슈타인은 히틀러를 괴롭혔는데 그때 상처를 받은 히틀러는 다음에 크면 유태인을 다 죽일 거야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수백만 명을 죽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반성을 하여, 철강회사를 헌납하고 초등학교 선생부터 다시 시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 하라고 말한다. 언어의 세계가 당신의 세계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는 미래를 만든다. 거지가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위대한 학자로 생각해 그의 집에 모셔와 매일 토론을 하여 쓴 책이 유토피아다. 그들은 에라스 무스와 토마스 모아다. 악연과 인연이 있어서 행복하다.

말 한자리 글 한 귀절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보라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해하고 동의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전문가의 리더십은 곧 인격이다. 미래 비전을 위한 인격과 사명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 사무국 일지(5. 11 ~ 5. 15)

5. 12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대 미래융합대학 운영위원회</li> <li>● 지역 언론사 오찬 간담회</li> </ul>	5. 15 (금)	● 제1484회 금요조찬포럼
--------------	---	--------------	-----------------

## 1. 노사 동향

###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집중

○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5. 10)

- 현재 위기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 표명
-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 마련, 조속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발언
  - ※ '전국민 고용보험' 주요 내용 : ▲미가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 ▲특수형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추진,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점진적 확대

○ 한편, 여야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입장 발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일시적 확대는 힘들다고 언급(5. 10)
-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표명(5. 10)

### ■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

○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발표(5. 11)

- ※ 한국노총은 4. 29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
- 입장문에서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하기로 했다'는 입장 표명

- 향후 사회적 대화는 정부(고용부, 기재부),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참여하는 '6+2 논의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5. 12)
  - 한국노총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며, '해고금지, 충고용보장'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민주노총은 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 2. 판례 동향

정기상여금 지급 시 특정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일할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기본급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나눠서 고정 지급한다고 규정함.
- 다만 취업규칙에서는 재직자 요건 조항과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일할 규정도 함께 두고 있음.

취업규칙 제98조 제5항·제6항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 제85조

입사나 퇴사로 인해 근로일수가 부족한 경우의 임금은 일할로 계산해

지급한다. 단, 일할 계산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07.3.31자로 해고하면서 2007.3.21 ~ 31까지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정기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해 지급함.
- 근로자들은 소속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만큼 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정기상여금 지급 자격요건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을 결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을 배척함.

## 2. 판결요지

-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직자 요건이 그 기재만으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음.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해 연 1,200%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 취업규칙 제98조 제6항은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회사가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기왕의 근로 제공 일수에 비례해 지급한 것은 취업규칙 제85조와 제98조 제6항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 사례와 다르게 회사가 매달 20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전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일할 정산해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요건과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정기상여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인식, 임금지급 규정 등을 종합해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

## 3. 시사점

-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재직자, 최소근무일수 요건이 있는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판례 법리가 확립되고 있음.
  - 대법원도 재직자 또는 최소근무일수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13520,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나66533 등)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다만 금번 판결은 재직자 요건이 있음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일수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일할 지급 조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지급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 재직자 요건이 무의미한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 한편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서울고법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도 존재,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임.